

◆ 교회소식 ◆

1.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빌 2:2-4)"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2.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3.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이번주 금요일(5월1일)은 월삭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5. 다음달(5월)은 가정의 달이며, 자녀들의 신앙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6. 5월 10일은 전 성도가 하나 되어 화합을 이루는 "한 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관리원. 오전 10시. 대전 중구 뿌리공원로 47)
7.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단기선교와 신학교 졸업식 행사를 위해 선교팀을 인솔하고 출국하십니다.
8. 다음주일 오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대청소)를 통하여 교회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우리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생일 :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기도 :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예금주 : 드림교회)

재정부(농협 471-01-119147) 선교부(농협 355-0005-8058-53)
건축부(농협 355-0005-8059-93)

◆ 새벽기도 제목 ◆

1. 월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화 -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3. 수 -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4. 목 - 사명과 선교를 위하여
5. 금 - 일터와 건강을 위하여
6. 토 - 주일예배와 인도자들을 위하여
7. 아픈 성도들의 건강 회복과, 어려운 성도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 5월의 교회일정 ◆

월삭기도회(1일)
어린이주일(3일)
어버이주일(10일)
한마음 체육대회(10일)
헌신예배/베드로회(17일)
기관별 월례기도회(31일)

2026표어: 하나 되어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빌 2:2-4)

◎ 4월의 표어 : 부활신앙의 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담임목사: 박 명 호

Rev. PARK MYEONG HO

부목사 : 김순길 장로 : 최재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113번길 48

042)532-4004. 533-5445

주일오전 영광예배

오전 11:00 인도/박명호 목사
 경배찬양 ----- 찬양단과 함께
 예배부름 ----- 인도자
 성서교독 --- 교독문 17 (시편 26편)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80장
 기 도 ----- 김순길 목사
 성경봉독 - 행 2:1-8 - 이은주 권사
 특별찬양 ----- 당신은 소중한 사람
 비전선포 ----- 비전선언문
 말씀선포 ----- 박명호 목사

갈릴리의 그 사람

찬 송 ----- 257장
 헌 금 ----- 다같이
 광 고 ----- 인도자
 봉헌기도 ----- 박명호 목사
 찬 송 ----- 축복송
 축 도 ----- 박명호 목사

새벽 은혜기도회

새벽 5:00 인도/ 새벽을 살리는 사람들
 말씀강론 1독 성경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기관별 소그룹

오후 1:00 인도/ 회징

제 1 부 오찬

제 2 부 기도와 소그룹

제 3 부 친교모임-회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편 133편1~3절)

삼일밤 진리예배

오후 7:30 인도/김순길 목사
 목 도 ----- 다같이
 찬 송 ----- 309장 ----- 다같이
 기 도 ----- 이정희 권사
 성 경 --- 잠언 10장 --- 인도자
 말씀인도 ----- 인도자
 의인과 악인
 찬 송 ----- 496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성령충만 금요기도회

금 밤 8:30 인도/ 연합기도회
 말씀 선 포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야곱처럼 기도의 살바를 붙잡으라!

◆ 목양칼럼 : 단기선교를 향하여 ◆

나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 단기선교를 떠난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다른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2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열 명의 신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사명자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스물세 명이 입학했지만, 열 명만이 끝까지 남아 졸업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열세 명은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명자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했다. 포기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던 그 눈빛들이 막상 졸업식을 하는 10명의 학생들과 중첩되어 떠오른다.

이번이 여섯 번째 졸업식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역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운영비가 바닥날 때도 있었고,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졸업식이 여섯 번이나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사역은 외로운 싸움이였다. 물질도, 시간도, 몸도 끝없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이 부르심이 맞는가를 수없이 물었다. 그럼에도 결국 이 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졸업하는 열 명의 학생들은 내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생계의 벼랑 끝에서도 성경을 놓지 않았던 그 손들,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고자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졸업식의 기쁨을 앞두고도,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는 기도 제목이 있다. 졸업 이후의 문제이다. 그들이 돌아갈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 '어떻게 이들의 사역을 계속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짐을 꾸리는 손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안다. 이 아이들을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의 앞길을 향한 염려도 결국은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지, 내가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님을 고백한다.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래서 즐겁고도 무겁다. 10년의 세월과, 그 세월을 함께 버텨 온 주님의 신실하심이 한꺼번에 밀려올 감동의 졸업식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를 향해 떠난다.

◆ 5월 예배 및 봉사위원 ◆

	기도위원	성경봉독	오후기도	특별찬양	수요기도	중식
1주	이은주	양승선	정리정돈		최재동	베드로회
2주	양승선	이정희	야외예배겸체육대회		김옥순	양부
3주	이정희	김경아	베드로남전도회 헌신		신두섭	내가쓴다
4주	박종선	양승미	신유진		김순길	청년회
5주	정경용	김옥순	기관별월례기도회		합심기도	남전도회
안내	박주오선.양승선			헌금	최재동	